

POLITICS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해남 이진성지 출토 자기류

조선 성곽터 ‘해남 이진성지’  
관광 자원·유적 가치 높여야

백자·옹기 등 유물 54점 출토

조선 후기에 축조된 석성의 성곽터인 ‘이진성지’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을 세워 주요 관광자원이나 유적으로서 이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해남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11일부터 12월17일까지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1227번지 일원 이진성지 서문지 주변과 남문지 주변 시굴조사에서 서문지와 옹벽 사이 원성벽 기저부와 건물지 초석 등이 확인됐다.

2023년 2월20일부터 실시된 2차 시·발굴조사(서문지옹성부, 북벽)는 이진성지의 성벽에 대한 축조방법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진성지의 성벽은 도로 개설과 주택 건설 등으로 성축의 일부가 이용됐음에도 원형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은 총연장 940m다. 확인된 채성부 너비는 대부분의 읍성과 같은 4.5m로 조선시대 읍·진성과 같았다.

옹성은 성문이 적의 공격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속시설로 진성의 경우 군사적 목적이 큰 건물로, 각 성문에 옹성이 대부분 자리하고 있다. 이진성지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서문지와 남문지 앞에 옹성이 확인됐다. 옹성 채성부 너비는 5.3m로 나타났다.

북벽 외벽의 축조방법을 알 수 있는 기저부와 성벽 서북쪽 모서리에 위치한 지(雉)도 확인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수군진성은 배치되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조선시대 읍성과 같은 형태로 축조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진성지 역시 축조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고, 외벽의 경우는 일부 기반층을 굴착한 후 판석형 지대석을 설치하고 그 위로 대형 석재를 통해 기단부를 설치했다.

조선 중·후기로 보이는 백자, 옹기, 기와 등 유물 54점도 출토됐다.

이진성지는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다른 마을에 비해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원래의 만호진의 마을 모습을 재생하고 주변에 관광 편의시설을 제공해 준다면, 관광산업 활성화로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서는 성곽 시설의 정비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문, 남문, 동문은 발굴과 고증을 거쳐 복원하고, 문의 구성요소인 성곽, 문루, 옹성, 해자 등을 정비하며, 북쪽 성벽도 약 120m를 원형 복원해야 한다는 것.

고대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종합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주민 홍보와 함께 시·발굴조사를 실시한 서문지를 우선 복원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해남 이진성지 서문지 옹성부 발굴조사 후 전경

“시 모빌리티 강점 둔 광주, 자율주행특구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호남서 연일 표심 공략  
광주공항 국제선 복원 강조…강기정 시장 면담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0일 “대통령이 되면 광주공항에 국제선 기능을 즉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안국제공항 참사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광주시민들이 국제선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광주시민들이 예전처럼 광주공항에 일정한 기간 국제선 복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 막바지라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주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주공항은 국제선을 상당 기간 운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만 갖춰지면 즉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광주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해 세계적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규제 완화는 탁상공문에 그친 경우가 많다”면서 “광주에서 실제로 운행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용 서비스를 구축해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 지하철 2호선과 복합쇼핑몰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지하철 2호선 연장은 당연히 필요하고 광주는 도시 구조상 순환보다는 방사형 교통망이 더 적합하다”면서 “2호선 이후에는 수요를 세밀히 분석하고 트레일러 경전철 같은 유연한 교통 수단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불러서 ‘광주에 들어와라’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치 경쟁이 아니라, 광주 시민이 원하는 소비 방식과 지역 상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광주시청을 방문해 강기정 광주시장으로부터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소설책을 선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복합몰은 단순한 유통시설이 아니라 도시 기능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지역 소비자들이 원하는 브랜드, 문화시설, 공공기능을 담은 플랫폼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호남을 찾은 대선 후보들이 많아졌다는 질문에는 “호남을 자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약속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 “누구나 광주에 오면 5·18정신 계승을 말하는데 정작 광주에 필요한 건 청년 일자리, 교통, 산업, 주거 문제이다”며 “저는 광주를 단순히 ‘기억의 도시’로 말하지 않으며, 실현 가능한 도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선 공약이 지역 민원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채워지면 안 되며,

임기 중 직접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말보다 행동으로 광주에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런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많이 높았을 광주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선 기간 내내 이어가고 있는 ‘학식박자 이준석’을 전남대학교에서 진행하며 학생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5·18광주민중항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사흘째 ‘보수 헌장’인 광주에 머물며 호남 표심에 구애를 나서고 있다.

보수진영 대선 후보로 사흘 연속 호남 행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전통적인 민주당 및 진보 진영의 텃밭인 호남과 2030세대를 흔들어 이탈표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대불산단, 전기 동력 선박제조 클러스터 구축”

민주당 선대위, 전남 서남권 조선업계와 정책 간담회

안도걸 국회의원(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입주 조선업체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정책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HD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대불해양조선, 대불조선, 회진조선,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김광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안도걸·서삼석·김원이 국회의원과 방희선·주시형·나주몽 교수 등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불산단 조선업계는 지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제조 클러스터 조성, 대불산단의 방산 MRO 특구 지정, 외국인 근로자 지원 대책, AI 자율제조 클러스터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조선업계는 “국책해사기구의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연근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중소형 어선을 중심으로 전기추진선박을 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근해 운행선박의 6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남해안의 중심지에 위치한 대불공단은 전기추진선박 제조의 최적

지”라며 “대불산단을 전기추진선박 전용산단 특구로 지정해서 전기추진선박 제조를 미래 조선업의 경쟁우위 분야로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미국과 해군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이 마련되면서 미국 군함의 수리·정비를 전담할 조선기지, 즉 MRO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목표에 입지할 예정인 해경선박 정비장에 근접한 대불산단을 MRO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업계는 특히 “조선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대불산단 종사 근로자 중 외국인 비중이 60%를 초과한 상황에서, AI 기반의 통역과 작업처리시스템 구축, 교육을 담당할 외국인 근로자 안전센터 건립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조선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인 전남 서남권의 핵심 산업으로, 지역 생존과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돼 있다”며 “서남권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공약에 반영하고 향후 입법 및 예산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회갑 맞은 광주시…24일 시민들과 함께 즐긴다

시청서 ‘시민의날 60주년’…김연자 공연 등 즐길거리 풍성

광주시는 ‘시민의 날’ 6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시청 일원에서 시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대규모 축제를 연다.

올해 ‘시민의 날’은 ‘광주만세’를 주제로, 광주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기념식과 문화공연, 시민참여무대, 정책 전시, 체험행사까지 온 가족이 하루종일 즐길 수 있는 종합축제로 운영된다.

‘광주시민의 날’인 5월 21일은 1980년 5월, 시민 항거에 계엄군이 퇴각한 날이다. 광주시는 이를 기리기 위해 기존 11월 1일이던 시민의 날을 2010년부터 5월 21일로 변경해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인 24일 행사를 진행한다.

기념식은 이날 오후 6시 시청 야외음악당 분무대에서 열린다. 관악대 행진을 시작으로, 광주시민의 날 60년 회고 영상, 시장 기념사, 내빈 축사, 2025 시민대상 시

상, 디자인비엔날레 1호 티켓 전달, 주먹밥 나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올해 광주시민대상 수상자인 허정 예멘병원 원장은 의료·사회봉사·인재양성·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시민과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공연이 분무대에서 열린다.

올해 회갑을 맞은 1966년생 시민 10여명을 초청해 전통 방식으로 생일잔치를 여는 ‘수연례’, 7080 레트로 음악과 광주 이야기로 구성된 ‘광주의 노래’, 조선대 태권도 뮤지컬 등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시청 앞 도로에는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지난해 인기를 모았던 워터월드가 운영된다.

오후 7시부터는 ‘심투게더 광주 시즌2’가 열린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이 무대는 시민 재주꾼들이 무대에서 끼와 열정을 뽐내고, 초대가수 김연자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장승기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서울 국회에서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글로벌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 등 도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 전남 현안 대선공약 반영 ‘분주’

김성한 민주당 국회의원 면담…지역발전 건의과제 요청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한 국회의원의 원을 만나 전남지역 현안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핵심 현안이 정당과 대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나주 ‘에너지 AI 모델시티’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 ‘AI 첨단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 전남도가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대선공약에 반영시킬 핵심과제와 지역 현안을 중점 설명

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미래가 걸린 중대하고 과제를 만든 만큼 대선공약에 최종 반영되고,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 국정과제까지 이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한 의원은 “전남이 제안한 과제가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전략이라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 미래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정책을 적극 검토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 박차

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산업 육성 전략 연구 착수

전남도는 20일 도청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 기획’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어 본격적인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등 시·군 관계자와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배터리 분야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융합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기획 과제 추진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과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전력 계통의 안정성 향상과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적 출력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기술 동향과 전남의 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소재·셀 분야 기업 유치 방안, 실증·상용화 연계 전략, 인력 양성과 재정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전남이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기가 중심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가 시장의 성장 정세로 인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에너지저장장치 등 새로운 배터리 분야로 다각화를 추진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